

섬 특성 사라진 삼학도 복원...通수로 살려내야

(통수)

문제점과 해법 짚어보니

‘해양관광 중심 도시’ 목포, 갈 길이 멀다. 목포시는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2000년부터 14년째 ‘삼학도(三鶴島) 복원화 공원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진정한 삼학도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이 사업은 삼학도 복원이 아니라 공원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비난이 줄기차게 일고 있다.

이에 목포시 삼학도 복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봤다.

◇외지인이 보는 삼학도=삼학도 보존회에 따르면 목포를 찾은 외지인들은 옛날 삼학도 이미지를 떠올리며 삼학도를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학도를 찾은 외지인 10명 가운데 9명이 삼학도에 와서 “삼학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학도 보존회 김중영 회장은 “삼학도는 섬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삼학도 복원 공원과 조성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섬의 이미지’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학도가 섬이란 생각이 들도록 보행이나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게 외지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완공 후에도 섬의 개념을 전혀 느낄 수 없어 지금이라도 조성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복원사업은 울 사업비 미확보와 대용수산·성광조선 보상, 시설물 관리 부재와 유지관리 비용 전무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수목 고사와 수로 적조 문제는 심각하다.

도시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총 16억 원을 들여 대·중·소 삼학도와 중앙공원에 네 차례에 걸쳐 가시나무·후박나무 등 7만5000여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녹지 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경관사업과 협의없이 토양에 적합한 수종 검토나 생육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 결과 수천 그루가 고사했다.



목포의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삼학도 복원을 위해서는 통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대삼학도 수로(구 일흥조선 방향)에서 바라본 통수 지점. (조감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수 구간).

◇수목 고사·수로 적조 등 문제점=심지어 중삼학도의 경우 아카시아 나무와 칩나무를 우거진 숲에 수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런 어저구니 없는 무지로 인해 어린 나무들이 생육 부진으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사업단은 대략 9000수 정도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소삼학도와 중삼학도에 조성된 수로 2.1km를 직접 노를 저어 가는 카누 체험객들은 물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호안 수로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바닷물을 환수시키는 것이 꼽힌다. 사업단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로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기산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환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

거리는 130m 정도. 이곳에 수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단은 “100억원의 사업비도 부담이지만 통수될 경우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기존 호안수로의 석축을 1m가량 높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영수 의원은 “공정률이 70%로 아직 건설하지 않은 수로 100m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350억원 가량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을 약간 늦추고, 미 건설중인 수로의 설계 변경만 이뤄지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으려면 삼학도 선녀(三鶴仙女)의 전설을 지닌 손색없는 삼학도 복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통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연 목포시가 이 같은 여론을 목실한 채 현행 방안대로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적극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수종·생육환경 고려않고 7만여그루 심어 수천그루 고사 비좁은 호안수로 적조·악취...내항 연결 수로 신설 시급

이 넘어 재식재를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목포시의회 정영수 의원은 “15억~16억 원을 들여 나무만 식재하면 뭐하느냐”며 사후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지금이라도 화웨 전문가와 협의해 삼학도 복원화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는 조경 식재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삼학도 호안(護岸) 수로가 비좁아 6월~9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적조 현상과 심한 악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을 검토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법은 뭇가= ‘섬 이미지’를 지닌 진정한 의미의 삼학도 복원과 적조 해소를 위해서는 ‘통수’(通水)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항과 내항의 바닷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통수’ 여론이 힘이 실리고 있다.

대삼학도 구 일흥조선 쪽 수로에서 서부항온조 건물을 지나 내항으로 연결하는 안이 최저지로 좁고 있다. 두 지점간의



중·소 삼학도 호안수로. 폭이 비좁아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



아카시아나무 숲과 칩나무가 무성한 곳에 어린 나무를 식재해 수천그루가 고사했다.

내항화물선 노후화·안전설비 미흡 심각

목포항만청, 14척 점검

목포항에서 화물을 싣고 신안과 진도 등지를 오가는 내항화물선이 노후화되고 구명·소방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에 따르면 최근 내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차도선형 화물선 14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선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4척은 출항정지시키고, 나머지 10척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기항부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선령 20년 이상 선박 5척에서 29년, 10년 이상 20년 미만 선박 6척에서 29년, 10년 미만 선박 3척에서 3척의 결함사항이 발견돼 선령이 높을수록 결함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야별 결함사항으로는 ▲소방분야 10건 ▲구명설비분야 9건 ▲선체 9건, 기관 8건 ▲화물고박 6건 등 순이며, 선령이 높은 선박일수록 선체부식 관련 결함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 항만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항화물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에 선박검사 대행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과 선박운영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노후 선박에 대한 철저한 지도·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차도선형 여객선에도 능기계와 건설기계 적재가 가능해졌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교육청 사업분석 컨설팅...교육의 질 높이기로

목포 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현주)이 올해 사업분석 컨설팅을 통해 내년도 목포교육의 질을 높여나간다.

목포교육청은 최근 유·초·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일반직 등 4개의



목포교육청 2014 사업분석 컨설팅 회의 모습. (사진)

그룹 26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교육 2014 사업분석 컨설팅’을 가졌다.

목포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분석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내년에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수정·보완할 사업, 현행 유지사업 등을 분류했다. 목포교육청은 각 그룹(교장·교감·교

사·일반직)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교장과 각 과장, 장학사, 담당간 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 및 본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목포교육지원청 김보경 장학사는 “사업분석 컨설팅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목포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한은목포본부, 목포고와 고교생 경제교육 지원 협약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전경진)가 목포지역 고등학교생들의 경제교육 지원에 나섰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목포고등학교(교장 문대원)는 최근 미래의 지역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제교육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고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과학습을 위해 경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경제 동아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심도있는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목포고와 지역내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경진 본부장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은 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협력형 경제교육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더욱 많은 지역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경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내차, 캠핑, 전, 담, 모빌 대출한도: 최고 80%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기간: 상환연한 10년 / 만기연한 15년 상환방식: 원금상환 (이체/현금)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전입증명서, 주민등록·호적 각 1부, 연소득, 신용증	02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활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기간: 신용등급에 따라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대출한도: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활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연 0.01% (이체/현금) 보증: 보증 0.95% (이체/현금), 0.90% (현금)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라) 상환방식: 원금상환 (이체/현금)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전입증명서, 주민등록·호적 각 1부, 연소득, 신용증	04 저당담보, 차량담보, 개인저당담보,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기간: 저당담보 및 차량담보: 연 14일, 개인저당담보: 최저 5.0%~ 대출금리: 최저 5% 대출방식: 대금 이체/현금 즉시 전액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 펌프 보일러

남방점 대표번호 1644-8983